Teaching Medical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Care: a Resource Book (Sarah Hartley, Deborah Gill, Frances Cater)

- Title: Teaching Medical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Care: a Resource Book
- Author: Sarah Hartley, Deborah Gill, Frances Cater
(양은배, 이승희, 황은영 공역)
- Publisher: Oxford University Press

의학교육에 대한 의과대학/의전원의 관심들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원래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이 학생들에게 의학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새삼스레 무슨 말이나고 질문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의과대학/의전원에서는 교수들이 연구와 임상에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고, 따라서 교육은 항상 가장 가벼운 부속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의과대학 인증평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의학도들이 가지는 국제적 경쟁력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학교육은 이제 의과대학/의전원의 중요 관심사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와 연구만으로도 매우 바쁜 의대교수님들이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신 개념을 쉽고도 명확히 이해하기에 좋은 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을 위한 “의학식 간단명료성”을 잘 갖춘 책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좋은 의학교육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적합한 책을 찾고 있다면, 이제 한국의학교육학회에서 우수저서번역상을 수상한 좋은 번역서가 한 권 나왔음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지식의 전달이 의학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위해 의학교육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교육학 이론과 의학교육 상황을 잘 조화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 교육에 직

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지침서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성 내용은 교수학습의 일반적인 원칙, 수업준비,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 주제별, 대상별, 장소별 교수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 교수개발에 대해서도 기

Korean J Med Educ 2009 Mar; 21(1): 79-80.
doi: 10.3946/kjme.2009.21.1.79.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술함으로써 의학교육의 교육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교육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임상교수들이 교육에 대한 확신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도 좋은 참고서가 된다. 흥미롭게도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적인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은 잘 개발된 문서가 아니라 강의실과 임상실습 병원에서의 학생 경험이며,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이러한 경험의 핵심에 있다. 이 책은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

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을 책상 한 모퉁이에 두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적극 권해 드린다.

전우택, 연세의대 정신과/의학교육학과

Woo Taek Jeon, Department of
Psychiatry/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